우리 모두 마음에 있는 '三身佛'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⑪ 삼신불(三身佛)

대덕들이여, 삼계(三界)는 편치 못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오래 머물러 있을 곳이 못 된다. 무상이라는 죽음의 귀신이 한순간에 귀천(貴賤)과 노소(老少)를 가리지 않고 목숨을 빼앗는다.

여러분들이 조사의 부처와 다르지 않은 경지를 바란다면 밖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에 갖춰진 청정한 광명이 여러분 각자의 법신불이다. 여러분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에 갖춰진 분별없는 광명이 여러분 각자의 보신불이다. 여러분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에 갖춰진 차별 없는 광명이 여러분 각자의 화신불이다. 이 세 가지 부처의 몸은 바로 지금 나의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다. 다만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공용(功用)이 있는 것이다.

경론을 의거하여 공부하는 이들은 세 가지 부처 몸을 취하여 최고의 법으로 삼으나 산승이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다. 이 세 가지 부처의 몸이란 이름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세 가지 의지처일 뿐이다. 옛사람들은 말했다.

"부처의 몸은 뜻에 의지해 세운 것이고 불국토는 법성의 본체의 의지해 논한 것이다"고 하였다. 법성의 부처 몸과 법성의 불국토는 자기 성품의 그림자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어느 날 임제는 대중을 향해 법문을 하면서 이 세상이 '불타는 집'이라는 〈법화경〉 속 화택(火宅)의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다. 불난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 빨리 나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불교의 근본 사상을 해탈 사상이라고 말한다. 특히 선에서는 생사(生死)해탈이라는 말을 즐겨 써 왔다. 깨달음을 얻으면 생사를 물리친다고 하였다. 생사를 대적(對敵)한다는 말은 선어록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부처와 중생을 생사의 경계를 가지고 구분해 생사가 있는 것은 중생이고 생사가 없는 것을 부처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생사라는 것이 기실 부처의 그림자다. 빛은 본래 그림자가 없지만 어떤 물체가 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마음에 본래 갖춰진 광명이 바로 부처의 세 가지 몸이라고 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처는 내 안에 있다고 했다. 밖을 향하여 찾아보아야 헛일이라는 것이다. 임제는 항상 이점을 강조한다. 임제뿐만 아니라 중국 선종의 조사들은 '마음이 부처'임을 강조한다. 이 말이 선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직설(直說)이다. 중국불교 특히 선불교는 직관(直觀)을 중시한다. 사변적인 사유체계를 거부해 왔다. 논리적 이론을 곡담(曲談)이라고 은연중 무시했다. 오직 마음이 부처이므로 부처를 찾는 것은 마음을 찾는 것이라고 천명해 오면서 참구(參究)해야만 한다고 했다. 부사대의 〈심왕명〉에도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이다. 마음을 떠나면 부처가 없고 부처를 떠나면 마음이 없다"고 하였다.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왜 이토록 강조하고 있을까?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이고 선불교가 직관이기 때문이다. 즉심즉불(卽心卽佛), 이는 자기 정체를 확인하게 하는 최고의 말이다. 물론 이 말도 말을 떠난 말이기 때문에 마조의 어록에는 반대의 말인 비심비불(非心非佛)이라는 말도 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표현되었지만 이 역시 조사(祖師)의 경지에서는 즉심즉불(卽心卽佛)이다.

임제는 부처의 세 가지 몸이 모두 마음에 갖춰진 밝은 광명이라 하였다. 청정한 광명, 분별없는 광명, 차별 없는 광명이 법신이요, 보신이요, 화신이라 하였다. 오래 있을 곳이 못 되는 이 세상의 무상한 경계를 빨리 뛰어넘자 하였다. 객관 경계를 의식해 만드는 관념적인 생각이 때로는 미혹을 조장하는 수가 있음을 지적, 삼신불을 개념적으로 보지 말 것을 대중에게 주문하고 있다.

마음을 광명이라고 표현한 말은 경전에도 나온다. 〈화엄경〉에 "보살은 언제나 마음의 광명으로써 보살행을 한다"고 하였다. 광명은 어둠이 아닌 밝음이다. 그런데 중생은 마음의 광명이 차단되어 무명(無明) 심지(心地)에 터를 잡아 탐(貪), 진(嗔), 치(痴) 삼독(三毒)의 뿌리가 심어져 있는 것이다.

〈조계종 고시원장〉

겨자씨에 우주 담는 '수릉엄삼매'



세상 속 경전읽기

⑪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

오래전 아직 해외나들이가 쉽지 않았던 때에, 세계 무전(無錢)여행을 다니고, 세계여행기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분의 이야기 한토막이다.

당시는 한국이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나라였다. 그 여행가가 유럽의 한 나라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코리아'를 아느냐고 묻자, 한 초등학생이 안다고 손을 들었다. 교단 앞으로 불러내어 지구의에서 코리아를 가리켜보라고 하자, 지구의를 몇 번이나 돌려가면서 찾다가 겨우 한반도를 찾아 가리켰다. 그런데도 그 여행가는 한국과 먼 나라의 어린이가 코리아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명을 받아 눈물이 핑 돌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남침으로 전란을 겪고, 끼니도 수시로 거르며 해외원조로 연명하는 후진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했다. 이제 한국을 모르는 세계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코리아를 모르는 해외 어린이가 있어 코리아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 어린이는 휴대폰을 켜고 구글맵을 열어 쉽사리 한국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작은 휴대폰 속에는 세계지도 뿐 아니라 은하계를 비롯한 온갖 것이 다 들어 있다.

5세기 초 중국의 요진(姚秦) 때, 구자국(龜玆國) 출신의 학승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수릉엄삼매경(首楞嚴三昧經)〉은 부처가 견의보살(堅意菩薩)의 청에 따라 수릉엄삼매를 얻는 방법과 그 삼매의 불가사의한 힘에 대해 설한 경이다. 〈수릉엄삼매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보살이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를 얻으면, 능히 삼천대천세계로 하여금 겨자씨 속에 들게 하여, 모든 산과 강, 해와 달, 별 등이 모두 드러나게 하되, 원래와 같이 전혀 비좁지 않게 모든 중생들에게 보여주나니, 견의(堅意)여! 수릉엄삼매의 불가사의한 힘이 이와 같으니라."

〈首楞嚴三昧經 T0642_.15.0635c25-29〉

수릉엄삼매를 얻은 이는 온 우주를 겨자씨 속에 넣을 수 있다. 무량한 크기의 우주가 좁은 겨자씨 속에 넉넉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중생들에게 원래 모습 그대로인 (겨자씨 속의) 온 우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전이 설해질 당시에는 잘 믿기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웠을 수릉엄삼매의 불가사의한 힘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잠시도 놓지 못하는 현대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더구나 요즈음은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작은 휴대폰도 나오니 앞으로 겨자씨만한 휴대폰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수릉엄삼매는 건상삼매(健相三昧)·견고삼매(堅固三昧) 등으로 뜻번역 된다. 다부지고 굳세어 번뇌를 부수어 버리는 삼매로, 모든 붓다 및 10지보살(十地菩薩) 소득(所得)의 정(定, 삼매)이다. 수릉엄삼매를 얻으면 장군이 군대를 이끌어 적을 무찔러 항복받는 것처럼 번뇌의 마군을 파멸(破滅)시킬 수 있다.

이 정(定)은 백팔(百八)삼매 가운데 으뜸인 삼매이다. 요즈음 표현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의미하는 웰빙이나, '건강과 지속성의 삶'을 의미하는 로하스[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와 뜻이 통한다. 곧 웰빙은 건상(健相, 건강)삼매이고, 로하스는 건상(健相, 건강)을 지속하는 건행(健行, 건강의 지속)삼매로, 음사(音寫)로는 수릉엄삼매이다.

"무엇을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라 하느냐? 모든 삼매를 다 꿰뚫어 아나니, 이것을 수릉엄삼매라 하느니라."

〈大智度論 T1509_.25.0396c29-0397a01〉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⑰ 이해의 길 37

달마의 일갈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1989년 배용균 감독에 의해 만들어진 불교 영화다. 뛰어난 작품성과 아름다운 화면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호평이 쏟아진 작품이다. 지난해에는 '한국영화 100년사 10선(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영화는 한 동자승의 눈을 통해 삶과 죽음, 세속적 욕망과 깨달음의 세계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영화 제목이 선불교에서는 수행자를 향해 던지는 날 선 질문과 같다. 불교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수행하면서 깨달은 소식이 있으면 내놓으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자칫 본인의 밑천이 모두 드러날 수 있는 공격적인 질문이다. 선어록에는 질문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을 몽둥이로 때리거나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들이 가끔 등장한다. 때로는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기도 한다. 어떤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 선문답과 같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본래 이 질문은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즉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달마조사가 서쪽인 인도에서 동쪽인 중국으로 선불교를 전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선학의 황금시대〉의 저자인 오경웅(吳經熊)은 서론에서 "선불교는 인도적인 아버지와 중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닮았다."고 하였다. 그만큼 선불교에서 중국 도가사상의 분위기가 많이 느껴진다는 뜻이다. 중국인들이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도가를 통한 격의(格義)의 방법을 사용했던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달마가 중국에 왔을 때는 천태와 화엄 등의 교학불교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당시 종파 간에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 교학이나 각 종파에서 중시하는 경전은 붓다의 깨침을 설명하는 체계로써 의미를 가진다. 즉, 깨침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화엄경〉이나 〈법화경〉 등의 표현된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종파 간의 경쟁이 도를 넘으면서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깨침인 달을 보아야 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標月之指)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당시 달마의 눈에 비친 중국불교의 실상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달마는 먼저 수단에 집착하고 있는 교학불교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것이 유명한 선의 사구게(四句偈) 가운데 전반부 내용이다. 교(敎) 이외에 따로 전하는 것이 있는데(敎外別傳), 그것은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不立文字)는 것이다. 불교의 진리, 붓다의 깨침은 언어로 표현된 교학이 아니라 이심전심(以心傳心),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전승되었다는 뜻이다. 파격도 이런 파격이 있을 수 없다. 이는 달이 아니라 손가락에 집착하고 있던 교학불교를 향한 사자후였다.

달마는 당시의 불교계를 향해 비판과 더불어 대안도 제시하였다. 그것이 사구게의 후반부인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直指人心),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見性成佛)는 내용이다.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에서 시선을 떼고 직접 달을 보라는 뜻이다. 새로운 불교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선불교의 입장에서 달을 가리키는 수단은 손가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나 붓, 빗자루 등 수없이 많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손가락에 머무는 한 달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수단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달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달을 보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잘라버리는 것이 선의 정신이다. 이 과격함 속에 담긴 '무엇이 중헌디?'라는 본질적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선(禪)은 불교의 생명과도 같은 문제의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행해졌던 불교탄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사찰이나 불상, 경전 등과 같은 격식(格) 바깥(外)에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 실천적인 선불교가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해서 오늘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영가 찾는법

연결카페 : 백암역리원
http://cafe.naver.com/baikamsa

영가는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매사에 장애, 신경성, 우울증, 공부가 안되는 학생, 결혼이 안되거나 가정의 풍파, 병명이 안나올 때는 영가의 작용으로 불 수 있다.

대 상
명리 및 육효초보반, 영가특강반

백암역리원
02)597-1101
2,4호선 사당역 8,9번 출구 먹자거리 골목 안 200m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장림사
• 주 지 : 성 각 (속명 : 최용태)
• 주 소 : 경북 경산시 임당동 577-2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대한불교일련종 총무원장 법하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